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희망한다.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연령, 건강연령, 정신연령, 영적연령 등이 있다.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루스'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하였다. 사람이 아름답게 늙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대 고통이 따른다. 질병, 고독감, 경제적 빈곤, 그리고 역할 상실이다. 점점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된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정이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한 대장정의 길을 나섰다. 노년기에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3%는 70-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한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



취되었다.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세 때였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서였다. 다니엘 드 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하였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다. 베르디, 하이든, 헨델 등도 고회의 나이를 넘어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다.

또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하여야 한다. 즉 인간관계를 나의 편익을 먼저 도모하는 '이기심(利己心)' 중심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利他心)' 중심으로 가져야

한다. 미국 케네디컬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이기주의(利己主義)가 강해진다. 노욕(老慾)이 생긴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자존심이 강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폭군노릇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다는 자기도취에 빠질 수 있다. 또는 열세주의자(厭世主義者)가 되어 모든 일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運命)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自暴自棄)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는 결국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일은 마음가짐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고 일 중심이나 자기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라해진다. 타인 중심의 이타심(利他心)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가장 좋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이타심의 인간관계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하며 신뢰받기를 원한다. 사람은 자신이 대우받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중심임을 깨닫고 사람을 섬기는 상호신뢰(相好信賴)의 대인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인 것이다.

어떤 경계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후반전의 인생은 여생(餘生)이 아니라 후반생(後半生)이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내일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Is it nature for human being to die?

人が死ぬのは当然のことでしょうか?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노화와 죽음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Most people think of man's ageing and death as a natural process.

多くの人は老化と死を自然現象だと考えています.

● 노화와 죽음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But, if we regard them as only a natural process, many problems will occur.

老化と死を自然現象だと考えれば多くの問題が生じます.

● 만일 노화와 죽음이 진실로 당연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If man's ageing and death were really natural and necessary,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man to fear them.

老化と死が真に当然で必ず起きることならば、人はそれを恐れる何の理由もないでしょう.

●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늙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But, no one likes to grow old and die, without exception.

しかし誰も例外なしで老いて死ぬことを願いません.

● 만일 사람의 노화와 죽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례하여 일어나는 자연작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비율로 늙어서 같은 나이에 죽어야만 합니다.

If man's ageing and death proceed in proportion to the natural mechanism of time flow, all people should grow old at the same rate, and they should die at the same age.

もし、人の老化と死が時間の流れにより比例して起きる自然作用ならば、すべての人が同じ割合で老いて同じ年に死ななければなりません.*

속담 속의 영생학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영토를 빼앗고 바다를 지배해 온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최고가 되는 미래의 우주시대를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우주 개발을 위하여 미래 먹거리를 개발 곳은 화성의 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올해가 광복70주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인류의 광복, 우주독립을 준비할 때이다. 인류가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으므로 원시반본으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인류의 광복이요, 하나님의 완성이 완전한 우주 독립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심화되어도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스스로 변화를 입는 인간에게 주어진다. 한없이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의 육신으로 과학과 기술만 연구한다고 해서 구슬

이 꿰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은 분자로 조성되어 있다. 분자 속에는 원자 하나하나로서 조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핵이 있다. 핵 속에 중성자(하나님, 부처님, 생명자)가 마귀(전자)에 갇혀서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학문이고 인간의 실체이다.

만물은 사람 때문에 살고 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중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물질이다.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움직이는 고로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소사에 있는 승리제단에서 더 놀라운 인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진짜 구세주 하나님이 34년 동안 알려주시고 계신다. 오시라! 참 구슬을 꿰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인류의 참 목적, 진정한 인류의 광복은 달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길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희생적인 생활로 노력하고 공을 쌓아야 하나님이 불로초가 되는 영생의 만사를 주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영생의 조류는 점점 더 세차게 흐를 것이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헛갈리는 우리말 모음④

다음 중에서 맞는 표현을 골라라.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에 구름 한 점 찾아보기 힘든 햇살 강한 한여름이 되었다. 30도 이상 치솟은 기온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송골송골) 맺혔다.”

정답은 '송골송골'이다. 땀이나 물방울 따위가 살갗이나 표면에 잘게 많이 떨어지거나 있는 모양을 '송골송골'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송골송골'을 '송골송골'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모음 'ㄹ'과 'ㄴ'을 헛갈리는 경우가 참 많다. 여기서는 우리말의 '모음조화 현상'이 숨어 있는데 즉, 의성어나 의태어를 표현할 때 '가, 자, 나, 고'와 같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기, 키, 티, 피'와 같은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점차 모음 조화가 약화되어 어간과 어미의 결합 등 몇몇 특수한 경우에서만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강아지가 (강충강충/경충경충) 뛰어놀고 있다.”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

정답은 '강충강충'이다. 모음 조화 현상을 따른다면 강충강충(작은말), 경충경충(큰말)이 맞겠지만 표준어 규정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조항에 의해 작은말은 '강충강충'이 맞다.

이와 같은 예로 ~둥이, 발가숭이, 보통이, 봉죽, 뺨정다리, 아서라, 오뎅이, 주춧돌 들 수 있겠다.*

이승우 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묵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 어낸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건강할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 협찬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